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1.4/5

vol.282

보고 싶은 여인 조순자 씨(부부)



사회복지법인
한벗재단

www.hanbeot.org

“한벗은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한 벗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 · 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모차 장애아동에게 기증)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행)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꼭 만나고 싶은 여인 ‘조순자 님’

이 여성의 수기는 자신이 아닌 시어머니를 그리는 내용이 전부였다.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가,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도저히 못 살겠다.’며 며느리 곁으로 와서 죽는 장면에서 그만 눈물을 쏟았었다.

봄이다! 코로나 족쇄에 시달린 사람들이 관광지로 달려간다. 하지만 꽃보다 사람, 난 보고 싶은 여인 만나러 가련다. 이름 안 지는 10년 넘었지만 아직 못 만났다. 경북 김천에 산다는 것만 안다.

13년 전에 읽은 그녀의 글 한 편이 지금껏 가슴에 있다. 2007년 장애인 수기공모 때 응모한 글이다. 보통 수기라면 본인 이야기인데, 이 여성은 자신이 아닌 시어머니를 그리는 내용이 전부였다. 병원에 입원한 시어머니가, ‘나는 네가 보고 싶어 도저히 못 살겠다.’며 며느리 곁으로 와서 죽는 장면에서 그만 눈물을 쏟았었다.

열아홉 소녀의 절망

조순자, 1964년 서울 생. 여고 졸업한 해, 뇌출혈로 편마비(반쪽 마비)가 되었다. 꽃피는 열아홉 살 때였다. 절망의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당시 KBS 라디오 장애인 프로, ‘내일은 푸른 하늘’에 보냈다. 며칠 후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나도 스무 살 때 하지마비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장애를 입었다는 말만으

로도 반가웠다. 두 사람은 2년 동안이나 편지를 주고 받았다.

야반도주

어느 날, 스물두 살 서울 처녀가 야반도주해 경상북도 김천 시골동네로 왔다. 편지를 주고받은 12살 연상의 하지마비 신랑과 살겠다며. 둘만 살 줄 알았는데 와보니 일흔 살 노모가 계셨다. 시어머니는 어린 며느리에게 아들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다행이었다. 서울 처녀는 밥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으니.

신랑은 휠체어에 의지해 구멍가게를 했다. 편지와는 달리 ‘말없는’ 경상도 사내였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저런 집구석으로 오노?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한다꼬!’ 시어머니는 살림은 물론 밭일과 행상까지 하셨다. 며느리는 뒤만 졸졸 따라다닐 뿐이었다.

그녀의 수기는 이후부터 시작된다.

〈다음페이지 계속〉



그녀 수기엔 ‘장애극복’ 같은 낯 간지러운 억지가 없다.
단지 시어머니가 보고 싶고 사랑이 그립다, 는 이야기뿐이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에, 장애를 잊고 사는 여인이 보고 싶었다.

페인이 되어 돌아온 시아버님

시어머니는 18살에 시집오셨다. 딸만 내리 셋을 낳자 시할아버지가 구들장을 파내며 내쫓았지만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텼다. 시아버님이 젊을 때부터 주색과 노름에 빠져 밖으로 나돌자 보따리 장사를 하며 6남매 자식을 홀로 키워내셨다. 그 시아버님이 알콜중독 수용소에 머물다 중풍으로 쓰러져 집으로 오셨다. 시어머니는 페인이 된 시아버님을 품어 편안히 눈 감게 하셨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아득한 사랑에 숙연했다.



보고 싶어 못 살겠다

가톨릭 신자인 며느리가 성당에 다니자고 졸랐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이 무렵 며느리가 정신을 잃고 자꾸 쓰러지다 18시간이나 혼수상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를 지켜본 시어머니는 ‘나 때문인가 보다,’ 며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밭에 나가는 시어머니 거들려고

쫓아다녔지만 노상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쑤였다. 생명이 자라고 맺는 밭고랑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없는 사랑에 겨웠다.

보따리 장사 하며 노상 끼니를 거르던 시어머니가 끝

내 위암 선고글을 받았다. 시숙은 며느리에게 시어머니와 남편 둘을 맡길 수 없다며 집으로 모셔갔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보고 싶어 날마다 울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난 네가 보고 싶어 도저히 못 살겠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열흘 후, 며느리 무릎에서 소천 하셨다.

조순자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네로 시집 온 다문화여성들을 집으로 불러 한글과 한국음식을 가르치고 있다. 한국말을 못하고 낯설어 동네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에서 자신이 시집왔을 때가 떠올랐단다.

정부의 기초수급비로 살며 12년째 다문화공부방을 꾸려가고 있다.



미얀마 희생자 의연금 고맙습니다!

의연금 지원은 미얀마지부 한빛
직원과 어린이잡지 발행인, 현지
봉사자 등 3분이 상의해 가급적
어려운 가구에 전했습니다.

고명지. 구자명. 김민건. 김정묘. 김중호. 박정희. 배경미. 백진양. 송유자. 심아진. 심혜숙. 오승선. 이경자.
이광범. 이민희. 이영숙. 이지영(명숙). 이풍연. 인보광. 장혜경. 정금숙. 정수진. 최정임(미국 킬린). 최준수.
한영주. 한빛재단. 월체어날개달기 - 이상 27명, 합 2,730,000원(3월 18일 ~ 4월 23일까지 입금분)

※ 김민건, 김중호 정수진 선생님 연락처 알려주세요 / 02)393-0661

의연금 전달 내역

전달도시	양 곤	만달레이	영 란	밋 네	키친주	계
사망자 가족	2명 / 40만원	1명 / 10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부상자	5명 / 63만원	3명 / 30만원				
불복종운동지부	30만원	30만원			10만원	
계	133만원	70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273만원



큰 위로를 받았다는 희생자와 가족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 우리 돈 10만원은 미얀마에서는 외국 기업 생산직이나 초등교사 한 달
치 급여이며,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 시민불복종운동은 주로 의사와 시민지도자가 주축으로, 한빛지부의
직원 부인이 활동하다 최근 감시가 심해져 피신해 있습니다.

희생자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의연금을 접수를 계속합니다.

국민) 763601-04-002564 한빛재단(이름 옆에 '미' 를 적어주세요)



시민불복중운동

미얀마 사태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촛불 시위처럼 평화적 저항이라는데 있다. 하지만 군인들은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있다. 800여 명 이상이 죽었고 5천여 명이 부상을 입거나 체포되었다. 아이들까지 죽고 있다. 심심 깊은 불교 나라에서 어찌 이런 끔찍한 만행이 자행되는가?

돈과 권력

군부가 켜 돈과 권력 때문이다. 지난 65년 동안 대를 물리며 축재한 막대한 돈과 권력. 이 걸 놓겠는가? 저들도 사생결단으로 지킬 것이다. 군부와 시민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8888시민항쟁('88년 8월 8일) 때 군부는 수천 명을 죽였다.

극단의 대처

10대, 20대 청년들이 나서고 있다. 이들은 무섭다.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 군부의 살상도 도를 더해간다. 평화시위에도 살상이 계속되자, 앉아서 죽기보단 시민군을 결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어찌 군대와 맞설 수 있겠는가? 돈과 권력 대 시민의 대결. 역사는 늘 힘 센 놈이 편이었다. 오, 하느님!

한벗둥지 소식



몰래 다녀가시던 기부 천사님을 만났어요!

한벗둥지가 옆집이라 자신도 베풀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은행에 가서 정기후원 신청까지 하셨습니다.

종종 한벗둥지 문
앞에 쌀이나 과일,
간식거리가 놓여 있
는 경우가 있습니
다. 어느 천사가 다
녀간 걸까? 그러던
중 드디어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다름 아닌 둥지 바로 옆 세
탁소 사장님이었습니다. 둥지 식구 옷을 언제나 무료
로 고쳐주시던 그 사장님!



얼마 전 사장님 손녀딸이
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는
일이 계기가 되어 탄로가
났습니다. 사장님은 이번
에 은행에 가서 정기후원
신청까지 하셨습니다. 한
벗둥지가 옆집이라 자신
도 베풀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하다며-

천사가 옆집에 계시는 둥지는 행복합니다.

기부해 주신 후원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월 17일 ~ 4월 16일 ()안은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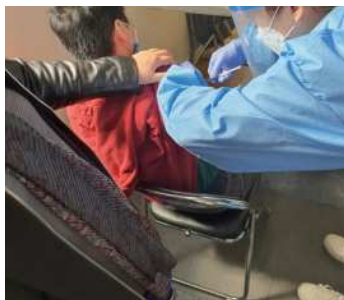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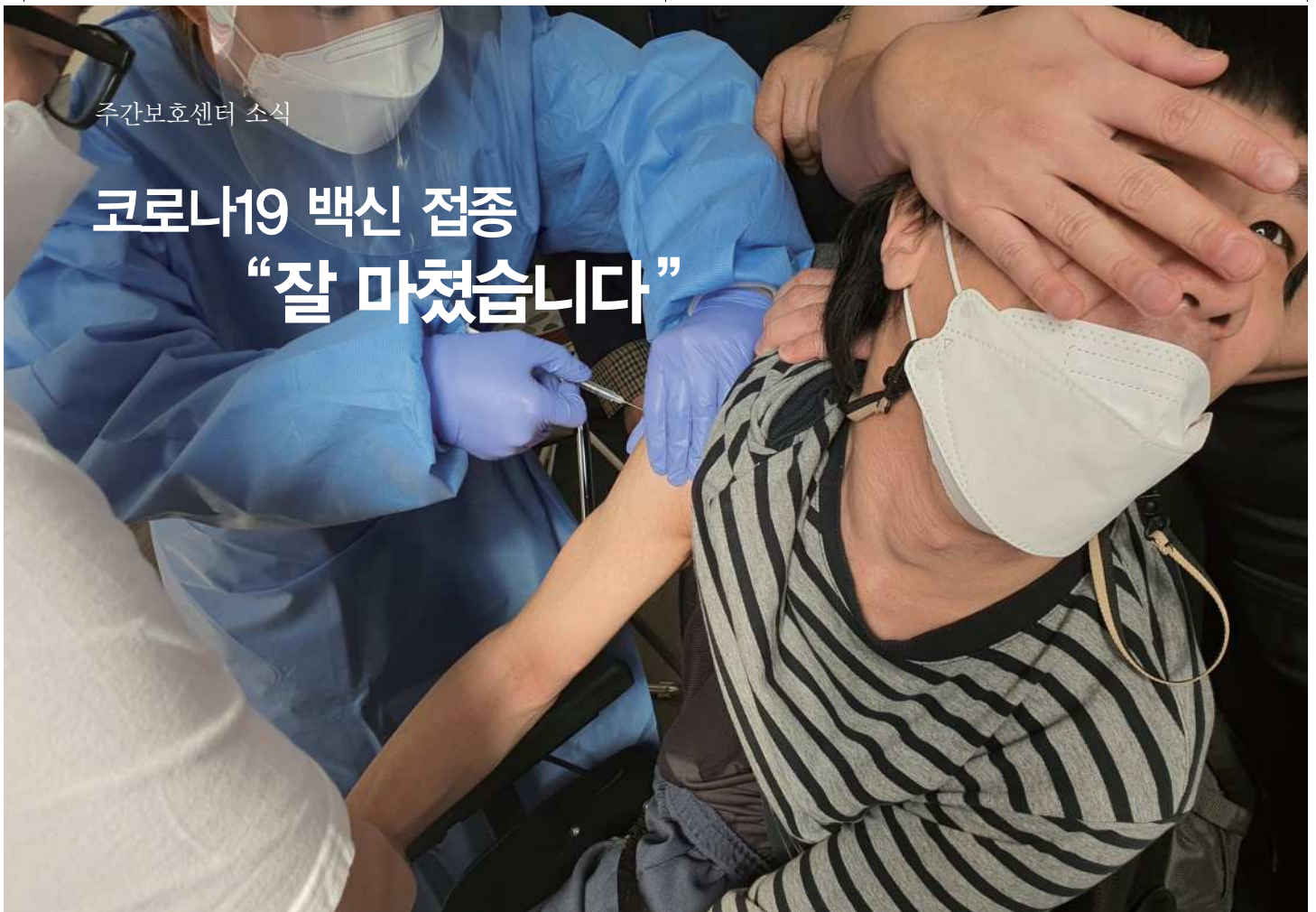
강순기 1만(2) 강신순 2만(2) 강인수 1만(2) 강훈선 5천(2) 광봉현 1만(2)
권미정 3만(2) 권영수 5만(2) 공영순 2만(2) 김간란 5만(2) 김미진 2만(2)
김선헌 1만(2) 김여은 1만(2) 김영순 1만(2) 김영진 1만(2) 김용락 5천(2)
김윤근 1만(2) 김윤희 1만(2) 김인숙 1만(2) 김인곤 1만(2) 김태일 1만(2)
김민서 5만(2) 김호영 1만(2) 마은영 5천(2) 문정희 2만(2) 박병훈 3만(2)
박해진 1만(2) 박희수 3만(2) 박성준 1만(2) 박푸름 1만(2) 백승열 4만(2)
서소녀 1만(2) 서인숙 1만(2) 성다혜 1만(2) 송은숙A 1만(2)
송은숙B 3만(2) 오광진 1만(2) 오성진 1만(2) 유정옥 5천(2)
유정자 10만(2) 윤일심 3만(2) 윤정애 1만(2) 윤정현 3만(2)
윤희훈 1만(2) 이경진 1만(2) 이대환 1만(2) 이명구 1만(2) 이병수 2만(2)
이상수A 1만(2) 이상수B 1만(2) 이옥순 1만(2) 이인섭 1만(2)
이재호 1만(2) 이현주 5천(2) 이태균 5만(2) 이태환 1만(2) 이혜란 5천(2)
임경숙 5천(2) 임영택 1만(2) 장영숙 1만(2) 장진섭 1만(2) 장호근 1만(2)
정세완 1만(2) 정완교 1만(2) 정영미 5만(1) 조기택 2만(2) 조길용 3만(2)
조성운 5만(2) 조은이 2만(2) 조은주 10만(2) (주)삼솔무역 5만(2)
지현정 2만(2) 진 권 1만(2) 진옥란 3만(2) 진주형 2만(2) 차민우 1만(2)
최경희 1만(2) 최미정 1만(2) 최선영 1만(2) 추지훈 1만(2) 한지행 1만(2)
한초덕 2만(2) 홍영미 10만(2) 황민규 2만(2) 황정현 3만(2)
서강어린이집 287,023원 열림교회 10만 서부지방검찰청 20만

주신 선물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 김명규(이용자) 식재료 / 김영호(이용자) 연잎밥 등
- 김영순(봉사자) 음료 / 롯데카드 쌀 등
- 박주용(이용자) 토종닭 / 삼남회(봉사자) 양말,
- 성산주민센터 쌀 / 서효원(후원자) 피자 / 손영숙(봉사자) 달걀
- 예당식품 음료 / 여일구(봉사자) 아이스크림
- 이옥순(후원자) 냉이 / 홍기탁(후원자) 사과
- 푸드뱅크 빵, 간식 등.

〈한벗 후원계좌 안내〉

- 한벗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벗둥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벗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지난 4월초, 우리 주간보호실도 백신 접종 통지를 받았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접종 백신이 AZ(아스트라제네카)이었기 때문입니다. AZ 백신

의 혈전 부작용 뉴스가 올라오던 때라 과연 맞아야 되는지, 망설였습니다. 우리 주간보호실 이용자는 정말 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30세 이상만 맞으라는 통지에 불안한 마음으로 종사자 전원과 이용자 3명만 접종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며칠 동안 안절부절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세 분의 상태가 서로 다르긴 했지만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지났습니다. 잘 견뎌 준 이용자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 이제 건강하게, 씩씩하게 코로나 터널을 지나요!

자원봉사 고맙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 우지민, 김주원

보내주신 선물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미영님(허유나 이용자 어머니) - 딸기 1박스, 케이크
- 김현진님(이준표 이용자 어머니) - 기립형 휠체어
- 박종미님(한효승 이용자 어머니) - 미역줄기 1박스, 꽃화분 2개, 새싹삼 3박스
- 박채련님(전소민 이용자 어머니) - 썬덱 5봉지
- 푸드뱅크 - 빵, 마스크 1박스
- 용산복지재단 - 물티슈 10박스

기부금 감사드립니다.

- 안승억 님(박현후 이용자 할아버님) / 10,000원



봄 별 이 고 마 운 사 람 들

꽃이 피고 물 맑고 산 푸르다. 밝고 가벼운 옷차림, 햇별이 즐거운 봄이다. 이 온기가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있다. 노숙인이다. 지난겨울, 몹시 추웠는데 어찌 지냈을까? 저녁 7시, 을지로 지하철도. 급식 줄을 선 이들의 어깨에도 봄이 감돈다.

노숙생활 평균 11년

전국 16,000여 명, 서울만 3,500명이다. 평균 55세, 여성도 700명이나 된다. 대부분 지자체가 마련한 노숙인 시설에서 묵지만, 정해진 시간표가 싫어 730명은 거리에서 지낸다. 노숙인 절반은 일용직이긴 하지만 직업도 있다. 평균 노숙기간 11년, 이력이 나서인지 표정이 의외로 편타.

도시의 난민

노숙 경위는 빚이나 신용불량 25%, 이혼 16%, 알코올 중독 10%, 정신질환 26%, 나머지는 이런 저런 이유. 어떻게 보면 경쟁과 옥죄는 압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기도 하다.

코로나 19도 못 건 들었다.

1,000원짜리가 아쉬워

그런데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다. 하루 한 끼만 밥과 국이고 두 끼는 말라 붙은 빵이다. 저렇게 먹고 어떻게 버티나 싶다. 이 처량한 사람들에게 끼니를 대접하는 봉사자들이 고맙다. 잔칫날은 일주일에 한 번, 어느 교회에서 500원짜리 동전과 컵라면을 받을 때다. 어찌다 1,000원과 컵라면에 더해 두유까지 받는 날은 두둑한 부자가 된다.

저들이 못 난 때문이라고 구박하기엔 우리의 행운이 꼭 당연하지도 않고, 신나지도 않다. 속 털어놓는다면 오십 보 백 보 아니겠는가. 40층 빌딩 앞 보행로에 거리낌 없이 자리 펴고 누워있다. 쫓지 말라,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40층 빌딩 앞 보행로에 거리낌 없이 자리 펴고 누워있다.
쫓지 말라,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 작년부터 한빛의 김영무, 성은복, 이경화, 백진양 님이 월 1회 마스크를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3)

정부는 문제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코로나 재난 지원금 줄 때처럼. 무슨 수를 내서든 바꾸어야 한다.

이는 표 따질 일이 아니다. 우리 어버이들의 말로를 비참하게 해선 안 된다. 누구나 늙고 병 든다. 요양보호사 문제가 제일 급하다.

현행 규정으로는 요양원이든 요양병원 이든, 민간이나 공공시설이든 1명이 7~8명을 돌볼 수밖에 없다. 똥 범벅 기저귀를 내버려둘 것인가?



천정주행호이스트를 설치하면 간병인 도움 없이 화장실을 갈 수 있

1. 장기요양보험료를 올리고 정부 보조를 늘려야 한다.

사는 형편이 나아졌다. 보험료 더 부담해도 된다. 정부도 예산을 늘려라. 반대하는 사람 요양원에 데려가 보여주면 된다. 요양보호사 늘리고 급여를 올려야 한다.

2. 돈 벌이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

지금까지 시설설립을 시장에 맡겨 돈벌이 수단이 되게 했다. 2020년 현재 공공시설은 전체의 1% 조금 넘을 뿐, 1곳에 대기자가 1,500명이나 되는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 선진국은 공공시설이 50%를 넘는다. 공공시설의 요양보호사도 늘려야 한다.

3. 돌봄기구를 활용해야 한다.

선진국은 돌봄기구 활용으로 간병인의 노역을 줄여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를 낸다. 우리 경우는 공공이든 개인시설이든 돈 든다고 구입하지 않는다. 몰라서 그렇다. 돌봄기구가 끊임없이 개발되어 경비를 줄여나가고 있다. 침대에서 간병인 도움 없이 화장실로 오갈 수 있는 장치도 있다.

4. 환자 위주로 하라.

같은 시간에 깨우고 재우며, 건물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기저귀 채우고 똑같은 배식, 수면제 처방 같은 노릇은 환자가 아니라 돈 때문이다. 노인은 늙어하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주어진 조건에 행복하지 말고 고민하게 한다. 찾으면 나온다. 먼저 선진국에서 배우라.

재단소식

어린이잡지 발행인이 보내온 편지



다행히 현지의 우편망은 막히지 않아 어린이월간잡지 기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난리 통에도 아이들은 자라야 합니다. 잡지 발행인인 ‘틴 카잉’ 선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수록 어린이가 소중합니다. 시련이 클수록 잘 키워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잡지 기증을 계속해주시는 한뼘에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선적을 기다리는 유모차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에도 화물 실은 배는 오가고 있지만 현지의 유모차 운송이 여의치 않습니다. 생필품 외에는 도시 간 이동이 제한된 까닭입니다. 현지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뼘 창고가 넘쳐 주차장에 적치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후원금, 고개 숙여 받았습니다



- 김정희 재단이사님 100만원 회사
후암동에서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울컥, 말을 잊었습니다.
- 최희환 님 30만원
왕년의 이동봉사회원이 지난날을 그리며 보내셨습니다. 양평 거주
- 김경미 님 30만원
휠체어날개달기 회원이신데, 고액 후원자이십니다.
- 민성숙 님 15만원
미얀마 보육원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기 위해 작년부터 대기하고 계십니다.
- 미국 교민 장덕환 회장님(달러스) \$300, 최정임 님(킬린) \$150, 큰 격려를 받습니다.



약하고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21년 2월~21년 3월 31일 입금분입니다.

※3월 31일에 인출되지 않는 경우,

4월에 인출하여 다음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안은 개월 수

〈한뼉재단〉

문숙자(2) **이상 1,000원**
김계순(1)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준(2) 구성유(1) 손미연(1)
이상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객안나(2)
곽환상(2) 구자균(2) 구재순(2) 김대현(2)
김동수(1)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1)
김수영(2) 김시홍(2) 김형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도현정(2)
류소연(2) 문혜원(2) 박법진(3)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현정(2)
배재수(2) 배종철(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아(2) 신인아(2) 신혜경(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2) 유해국(2) 이동재(1)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종태(2) 이지영(3) 이향민(2) 이호열(2)
임정리(2) 장재철/김록영(1) 전봉예(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주우익(2) 천성훈(1) 최수진(2) 최원진(2)
하성남(2) 한진숙(2) 현혜숙(2) 홍영일(2)
홍혜경(1) 채정애(1)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희정(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1) 김동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1) 김보금(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송파)(2) 김용남(효창)(2)

김용선(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재(2)
김인숙(2) 김인숙(부산2) 김자경(1) 김재환(2)
김정욱(1) 김중용/전정원(2) 김준형(2)
김진수(2) 김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나호진(2) 노현옥(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2) 박선영(2)
박수경(2) 박수희(2) 박순화(2) 박영주(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정진(2)
박종성(2) 박지숙(2) 박지현(1)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1) 배경미(2)
배춘숙/김신근(1) 서동범(2)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1) 석지은(2) 석창록(1)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양은정(2)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곤(2)
오용석(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민(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상일(2) 이상조(2) 이서중(2) 이선미(2)
이성직(2) 이승균(2) 이수경(2) 이양재(1)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윤상(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유택(2)
이종태(2) 이지영(2) 이지원(2) 이진훈(2)
이형영(2)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2)
임동상(2) 임옥자(2) 임정순(1) 장관용(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1)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1)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2)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3)
정창용(2) 정태영(2) 조근제(2) 조기권(1)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경한(2) 최명선(2) 최순희(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표창호(2) 하정희(2) 한성진(1)
한영주(1) 한혜숙(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황중수(2) 황해국(2)

이상 10,000원

김병석(2) 현영돈(2) **이상 15,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2) 김용신(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인자(1) 박지용/유정영(1)
백봉현(2) 백지용(1) 변상순(1) 서성민(2)
신광재(3)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연세어학원/이주연(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1) 이남숙(2) 이명옥(1) 이미경(2)
이상규(2) 이선용(2) 이상재(2) 이숙재(1)
이운구(2) 이정림(2) 이정우(1) 이주형(2)
이화경(1) 이희재(3) 조윤식(2) 최경희(2)
최두홍(2) 한성진(1)

이상 20,000원

박용길(2) **이상 25,000원**

강재철(2) 김계영(3) 김기형(2) 김은경(1)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2) 성숙경(2)
신화용(2) 오상은(2) 오형근(2) 이명옥(1)
이상길(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2) 정병배(2) 홍성관(2)

이상 30,000원

박종성(2) **이상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의규/구자명(3)

김정숙(2) 김지웅(1) 김현수(2) 김홍현(2)
 마마품(2) 민택산업/남기백(2) RTX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이정숙(2) 이종우(2)
 함형복/최혜자(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유제(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노희정(2)
 박지연(2) 어재형/신지영(2) 이승수(2)
 이영숙(1) 장우형(2) 최유미(2) 최종락(2)

이상 100,000원

채진석(2) **이상 150,000원**

안성환(2) **이상 300,000원**

명지춘해병원 교회(2) **이상 900,000원**

〈힐체어날개달기〉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1) 권은희(1)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1)
 김소하(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숙이(2)
 김옥렬(2) 김용환(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A(2)
 박수경(2) 박신웅(2) 박신자(2) 박옥자(2)
 백순정(2) 백마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2) 신승엽(2) 안종필(2)
 안지민/박미애(2) 안지우/박미애(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주연(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해숙(2) 이현경(2) 이형재(2)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나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묵(1)
 조선행/김은하(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옥희(2)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2) 추경은(2) 한정민(1) 한충길(2)
 한혜영(2) 허명희(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2) 김덕길(2)
 김일생(2) 김진형(2) 김철상/이공희(2)
 김효생(2) 박정경(2) 송경자(3) 오문영(2)
 이상희(2) 이연우/박정현(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2) 장혜연(2) 전순완(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건우/박정현(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강옥순(2) 김지영(1)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최정희(2)

이상 50,000원

박형상(2) **이상 100,000원**

변천섭(2) **이상 200,000원**

1년분 납부

안경옥 박순신 **이상 120,000원**
 김건우/박혜란 **이상 200,000원**

〈한벗동지〉

공아영(2) 기효순(2) 김인경(2) 고현우(2)
 광희수(2) 김계자(2) 김재열(2) 류민경(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1)
 박창범(1) 서정민(1) 송효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미영(2) 임정혜(2)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현(2) 광영현/장형기(2) 구성모(2) 권오준(1)
 김기래(2) 김면봉(2) 김병조(2) 김명희(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선옥(2) 김세연(2) 김승희(2) 김연주(1)
 김용미(2) 김우주(2) 김인순(2) 김정석(1)
 김혜정(2) 김홍모(2) 남성현(2) 노신규(2)
 노영서(2) 노인택(2) 류재남(2) 박건우(2)
 박경희(2) 박리라(1) 박상현(2) 박용우(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1)
 백정린(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2)
 서민향(2) 서정민(상암)(2) 서희주(1)
 신동연(2) 심윤섭(2) 안국희(2)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태(2) 여일규(2)
 우기후(2) 우춘자(2) 유예순(2) 이강전(1)

이소정(2) 이송순(2) 이영순(2) 이용식(2)
 이종욱(2) 이혜순(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민(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1) 장유나(2) 장철만(2)
 전에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재영(1)
 정영석(동지2) 정진하(2) 정향남(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최은미(2)
 하영환(1) 홍윤재(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희정(2) 김경란(2) 김성우(2) 김임순(2)
 김정호(2) 김희량(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2) 정현주(2) 하정운(2)
 한재형(2) 함종수/한정옥(2)

이상 20,000원

곽형우(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동지2) 성낙일(2) 오범균(2) 이웅기(1)
 이재웅(2) 정은영(2) 최갑석(2) 홍기택(1)

이상 30,000원

김간란(2) 윤미선(2) 조항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주지연(2) **이상 100,000원**

하대주(2) **이상 200,000원**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이상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진아(2)
 김왕수(2) 박병준(1) 신재철(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원주)(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최원우(1)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1)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이상 20,000원**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2) 이태희(2)
이상 30,000원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최수진(2) **이상 70,000원**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이상 100,000원**〈주간보호센터〉**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김미영/허규민(2) 김민정(2) 김세훈(2)
김인기(1) 박종미(2) 박채련(2) 양영춘(1)
오선주(2)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1)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이상 10,000원**김민정(2) **이상 15,000원**김정훈(1) 김종범(2) 신호숙(2)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1) **이상 20,000원**신두철(2) 안소영(2) 이원재(2) 한가현(1)
이상 30,000원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김현진(2) **이상 100,000원****〈미국 교민 후원금(달러스, 칼린)〉**보고 싶은 회원 여러 분, 코로나19가 어서
물러가서 한국에도 마음 놓고 다녀가실 때
를 기다립니다.**〈2020년 1-2월〉 ()은 개월**

- 달라스지역(\$1,350)

김보영 \$250(1) 김윤원 \$200(2)
스텔라 \$150(2) 장덕환 \$50(2)
특별후원금 장덕환 \$300

- 킬린지역(\$690)

성인숙 \$25(2) 최정임 \$25(2)
고향미 \$20(2) 김은희 \$20(2)
김중희 \$20(2) 김혜중 \$20(2)
백수산나 \$20(2) 이사벨라 \$20(2)
이정숙 \$20(2) 이영란 \$20(2)
조용순 \$20(2) 허양목 \$20(2)
특별후원금 최정임 \$150

후원계좌

- 한벗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벗동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벗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통권 제 282호

발행일:2021년 5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벗재단

주소:(우04319)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벗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이사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벗동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벗투어:02)702-1515

21년 2 ~ 3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정기후원금(재단)	17,553,758	시설운영비	7,180,000
동지/주간후원금	7,260,000	미얀마 사업비	4,400,000
휠체어날개달기 기금	5,250,000	어린이잡지 기증	2,253,424
방정환기금	2,075,000	식당 운영비	1,190,000
건물임대, 관리비	1,975,308	건물 관리비	939,400
직원식대 등	430,000	수용비 등	2,150,000
미얀마 의연금	2,730,000	버스할부금	3,170,780
		임대보증금 불입	2,666,000
		급여(3명, 2개월)	10,723,251
		차입금상환	3,505,543
		일용잡급	1,272,000
총계	37,274,066	총계	38,512,337



“차라리 나를 쏘라!”



사 람 세 상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과 부처님의 생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다.’ (요 9:1~12)

‘전생의 업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무엇을 하느냐? 이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동양이든 서양이든 얼마 전까지, 장애는 조상의 죄업이나 살이 낀 때문으로 믿었다. 그러나 장애의 95%가 후천적으로 생기는 현대에 와서 단순히 팔자소관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답은 놀랍게도 수천 년에 예수님과 부처님이 가르쳐주셨다.



2000년 전의 장애인은 당연히 조상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다.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눈 먼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께 물었다.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들어도 감탄할 대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다.’ (요 9:1~12)

장애인이 하느님의 도구라니? 이렇게 되면 저들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돌아온다. 그렇다, 언제나 장애인을 보는 우리 자신이 문제였다!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물론 당시 인도 사람도 불행(장애)과 고통은 전생의 업(業)이기에 벗을 수 없는 숙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묻는 사람에게 되묻는다.

‘전생의 업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인가? 중요한 건 지금 네가 무엇을 하느냐? 이다.’